

9대	윤 태 권	1991. 9. 1 - 현	재
24) 안 城			
8대	이 범 주	1982. 9. 1 - 1983. 11. 17	
9대	이 규 원	1983. 11. 18 - 1985. 2. 28	
10대	안 병 선	1985. 3. 1 - 1986. 12. 31	
11대	허 영	1987. 1. 1 - 1988. 2. 28	
12대	김 내 환	1988. 3. 1 - 1990. 2. 28	
13대	윤 태 권	1990. 3. 1 - 1991. 8. 31	
14대	고 광 남	1991. 9. 1 - 현	재
25) 金 浦			
6대	이 병 구	1981. 12. 9 - 1983. 3. 4	
7대	한 동 교	1983. 3. 5 - 1984. 4. 30	
8대	송 찬 석	1984. 5. 1 - 1986. 12. 8	
9대	노 상 술	1986. 12. 9 - 1989. 5. 15	
10대	권 이 완	1989. 5. 16 - 1991. 2. 28	
11대	김 윤 서	1991. 3. 1 - 현	재
26) 江 華			
5대	신 흥 균	1982. 9. 15 - 1983. 3. 4	
6대	변 석	1983. 3. 15 - 1986. 2. 28	
7대	권 광 옥	1986. 3. 1 - 1988. 12. 31	
8대	정 해 복	1989. 1. 1 - 현	재

### Ⅲ. 教育監 就任辭

#### 1. 第6代 黃哲秀 教育監 就任辭

尊敬하는 教育 同志 여러분!

先進 祖國 創造의 國民的 與望이 날로 高潮되어 가고 있는 이 때에 不足한 本人을 第六代 京畿道教育委員會 教育監으로 選出해 주신 廉普鉉 議長님을 비롯한 教育委員 여러분에게 鄭重히 人事를 드립니다.

그리고 京畿教育 發展에 많은 貢獻을 하신 歷代 教育監 여러분과 第五代 李浚景 教育監님께 敬意를 표하는 바입니다.

第五共和國의 出帆으로 이 땅에 民主主義를 上着化하고 正義·福祉 社會를 具現하기 위한 改革이 힘차게 推進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教育 分野에서도 80년 7월 30일에 斷行된 一連의 教育 改革의 窮極 目標인 教室 改革을 우리 教育者 스스로의 힘으로 이룩해야 할 時點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時期에 反共 第一線에 位置하고 護國의 業을 간직한 京畿教育을 本人이 맡게된 데 대하여 莫重한 召命 意識과 責任感을 切感하고 있습니다.

다만 本人은 大統領 閣下의 教育改革 意志를 받들어 文教指標와 지금 까지 쌓아 온 教育行政 그리고 一線 教育 現場에서의 經驗을 바탕으로 京畿道 100萬 學生을 主人 精神과 統一 安保 意識이 투철한 새 時代의 役軍으로 育成하는데 三萬 教育 同志 여러분과 뜻을 합쳐 熱과 誠을 다 할 굳은 決意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教育은 家庭, 學校, 社會가 渾然一體가 되었을 때 그 效果를 期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學父母를 비롯한 全國民에게 올바른 子女 教育觀을 갖게 하고 教育 施策의 뜻을 理解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모두 最善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學校長 中心의 創意的인 學校 經營을 最大로 保障하고 學生 스스로 計劃하고 探究 解決하는 自主的인 學習 風土를 造成하여 學生과 敎員의 福祉 增進 및 島嶼僻地 零細 學校에 대한 敎育施設 支援 등 本道가 안고 있는 많은 問題들을 단시일내에 解決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本人의 在任 期間동안 最善의 努力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敎育施策은 現況이 把握되는대로 適切한 方案을 樹立하여 다음 機會에 밝히기로 하고 오늘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몇가지 所信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全人 敎育을 통한 調和로운 人間을 育成해야 하겠습니다.

다양하고 무한한 人間の 潛在的인 可能性과 才質을 最大한 啓發시켜 주는 일이야말로 우리 敎育者의 實務입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二世들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키워 나가는 일이 敎育의 理想입니다.

그런데 요즘 一般的으로 ‘사람다운 사람’의 價値 基準에 혼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高度 産業 社會와 物質 文明의 빠른 變化에 敎育의 社會化 機能을 다하지 못한 데 그 原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結果만을 追求하는 知識 위주의 敎育은 실로 많은 敎育 非理와 弊害만을 낳게 하였습니다.

世界的인 敎育의 흐름도 知的 成就를 위한 學問 中心 敎育 課程에서 全人敎育을 위한 人格 形成에 힘을 기울이는 敎育의 人間化에 力點을 두는 추세라고 볼 때 우리도 ‘사람다운 사람’으로 敎育하기 위한 깊은 省察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各敎科 時間마다 모든 敎育者가 意圖的으로 꾸준히 人間敎育을 強調해야 할 것입니다.

방과 후 學校 運動場 이곳 저곳에서 많은 學生들이 身體를 鍛鍊하고 音樂室에서 合唱, 合奏練習 소리가 흐르고 美術室과 校庭 곳곳에서 畫板에 아름다움을 아로 새기는 모습이 보이며 圖書室에서는 讀書에 熱中하는 學生들이 가득찬 學校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調和로운 人間敎育의 道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은 知識과 敎養이 充滿하면서도 祖國과 民族이 처한 現實을 올바르게 直視할 수 있는 未來 指向的인 眼目과 꿈을 가지게 될 것이며 基本生活習慣을 익혀 秩序를 지키고 遵法精神이 體質化된 民主市民으로서의 價値觀이 形成되어 우리가 바라는 敎育은 充實히 實現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探究·創造하는 科學技術 敎育의 進興에 힘쓰겠습니다.

高度産業社會에 있어서의 科學技術의 水準은 그 나라 國力을 가늠하는 尺度로서 모든 나라들이 다투어 科學技術 敎育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大統領 閣下께서도 科學技術 開發의 成敗가 우리 祖國의 興亡에 直結된다고 말씀하시고 앞으로의 科學技術 敎育은 實用化할 수 있는 産敎育이 되어야 한다고 強調하셨습니다.

抽象的인 理論과 知識 中心의 科學技術 敎育을 果敢하게 탈피하여 實驗, 觀察, 實習을 통한 基礎科學 敎育에 力點을 두어 脫産業社會에 能動的으로 對處할 수 있는 頭腦開發 敎育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를 더욱 加速化하기 위해 本道에 설치한 科學高等學校 運營의 內實을 기하여 科學 英才 養成에 힘쓰으로써 本道가 우리나라 科學敎育 進興의 震源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존 자원이 限界點에 도달한 우리의 與件에서는 無盡藏의 寶庫인 바다를 開發하는 것은 우리의 切實한 當面 課題이기도 합니다. 특히

天惠의 條件을 갖춘 西海를 바라보고 있는 本道로서는 海洋 開發이 最大 課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各급 學校의 教育 過程 運營은 勿論, 特活을 통해서 海洋探 究 教育에 힘쓰는 한편 地域 特性에 알맞는 地域 開發 役軍을 기르는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한편 國際 競爭에 뒤지지 않고 國際社會를 先導하기 위해서는 外國 人과의 意思疏通에 不便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本人은 各급 學校의 外國語 教育을 強化하여 2000년대의 國家 和 民族發展에 기여할 人才 養成에 最善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使命感이 透徹하고 矜持가 높은 師道를 確立하겠습니다.

教育은 教師와 學生의 만남에서, 人格과 人格이 마주치는 데서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教師는 많은 知識을 갖추는 것도 重要하지만 그 이전에 人格 者로서 손색이 없어야 합니다.

자라나는 二世들이 훌륭한 人格을 갖추고 國家 社會에 奉仕하도록 하 려면 먼저 우리 教師들이 透徹한 國家觀과 教育哲學을 가지고 學生教育 을 위해 全力을 다하는 誠實性을 지녀야 하며 스승다운 品性和 資質 그 리고 指導能力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과 行動이 萬人의 師表가 되어야 하며 率先垂範과 教育愛 를 바탕으로 學生을 指導할 때 바람직한 教育의 成果를 올릴 수 있고 尊 敬받는 스승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學校長을 中心으로 한 校內 自體研修에 不斷히 노력하 여 教職者로서의 資質을 涵養하고 透徹한 使命感과 矜持를 높여 나아가 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教壇은 施設 與件의 未備와 入試制度 등을 理由로 自主

的이고 能動的인 教授-學習을 外面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다가올 高度産業社會와 國際化時代에 能動的으로 對處해 나갈 人才 養成을 위해서는 自律的으로 問題를 解決하고 探究하는 態도와 能力을 길러 주는 學生活動 中心의 學習活動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평소 一線 學校에서의 學生 中心 學習活動을 展開하려면 學校 內外 전 地域社會의 人的, 物的 資源을 教授-學習에 活用함으로써 可能한 것입 니다.

따라서 教育委員會를 비롯한 教育行政機關과 教育研究院, 科學館 등 直轄機關의 역할과 技能을 學生活動 中心의 教授-學習에 直結되도록 教壇支援을 忠實히 하는데 活用하겠습니다.

教育同志 여러분

오늘의 教育은 2·30년 後의 國家와 民族의 바탕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오늘 教育監의 重責을 맡게 된 本人은 生涯에 있어서 다시 없는 가장 보람 있고 榮光스러운 機會임을 切感하면서, 모든 精誠을 바쳐 國家繁榮 의 礎石이 될 京畿教育 發展에 이바지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參席하여 주신 來賓, 그리고 教育同志 여러분의 아낌 없는 助言과 積極的인 協調가 있으시기를 懇切히 바라며 여러분의 健康 과 家庭의 幸福을 빌면서 就任辭에 代하겠습니다.

大端히 感謝합니다.

1983年 2月 28日

京畿道教育委員會 教育監 黃 哲 秀

## 2. 第7代 朴允燮 教育監 就任辭

尊敬하는 京畿道教育委員會 金庸來 議長님, 그리고 教育委員님 여러분께서 本人을 教育監으로 選出해 주신데 대하여 甚深한 感謝를 드리며 오늘의 이 자리를 빛내 주신 來賓 여러분에게 鄭重히 人事를 드립니다.

그리고 京畿教育 發展에 많은 貢獻을 하신 歷代 教育監님과 第六代 黃哲秀 教育監님께 깊은 敬意를 표합니다.

그동안 京畿教育에 깊은 理解를 가지시고 뜨거운 聲援을 보내주신 道民 여러분과 學父母님 여러분께 人事의 말씀을 드립니다.

親愛하는 教育同志 여러분!

우리 祖國은 試鍊의 歷史가 물고 온 後進과 停滯의 굴레를 벗어나 豐饒와 福祉가 充滿한 大洋으로 힘차게 航進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눈부신 成長을 이룩하는 巨大한 推進力이 된 우리 教育은 先進과 統一祖國 建設의 國民의 隊列에 同參하여 發展의 意志를 高揚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重大한 視點에서 國民教育에 獻身 努力하시는 教育同志 여러분과 함께 反共 護國의 前消地이며 首都圈 地域인 京畿의 教育課業을 맡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또한 責任이 무거움을 痛感합니다.

全斗煥 大統領 閣下의 教育革新 意志를 높이 받들고 文教施策의 큰 줄기 아래 京畿教育의 指標를 「調和롭고 創意的인 韓國人 育成」으로 하여 「다듬는 教育」을 實踐의 方案으로 設定하고, 前任 教育監님이 이루신 빛나는 業績을 持續적으로 發展시켜 가면서 本人의 教育行政과 教壇의 經驗을 살려 創造와 開拓의 主役을 길러 내는 教育의 先進化에 獻身할 굳은 決意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教育이 未來社會에 能動的으로 對處할 수 있는 適應力과 겨레의

潛在能力을 開發하여 教育競爭의 世界的 潮流에 對應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뜻을 모으고 힘을 뭉쳐 실로 많은 課題를 풀어 나가야 할 處地라고 생각합니다.

仔細한 京畿教育의 發展 戰略에 대하여는 다음 機會에 밝히기로 하고 오늘은 教育問題에 관하여 認識을 함께 하는 자리를 갖고 싶습니다.

첫째, 全人的인 人間教育을 強化해야 하겠습니다. 올바른 國民意識과 知的 能力 그리고 創造의 生活 態度를 涵養하여 來日의 主人公을 心身이 밝고 바르게 자라도록 하며 자기 實現에 힘쓰게 함은 오늘을 사는 教育者의 責務입니다. 教壇의 教師들은 教育課程을 分析, 研究함으로써 教材 內容을 精選 組織하여 轉移價 높은 知識을 불어 넣어 주고 探究的 學習力을 북돋워 주어 學生의 知的 成就 欲求를 充足시켜 가는데 最優先的인 努力을 傾注해야 하겠습니다. 學力向上計劃을 持續적으로 推進하여 都農間, 學校間의 學力 차를 解消하고 學力의 上向의 平準化를 기함으로써 基礎學力의 責任管理를 積極 推進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近來의 物量的인 發展과 產業社會化의 趨勢는 價値 顛倒現象을 빚어내고, 人間 輕視의 風潮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구나 젊은 世代들의 一部에서 오늘의 繁榮과 來日의 밝은 未來像 實現의 굳은 발판인 自由 民主主義 體制를 威脅하는 現實的 狀況은 우리 教育者에게 깊은 省察을 要求하고 있습니다. 學生들에게 安保와 理念 思想 教育을 強化하여, 反共 愛國이 우리의 삶의 길임을 깨우쳐 주고 우리의 傳統에 바탕을 둔 倫理와 生活觀을 뿌리 깊이 심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國民學校에서는 基本生活과 學習習慣의 定着에 힘쓰고 中等學校에서는 教育活動의 모든 領域에 걸쳐 人性教育에 全力을 기울여 感受性이 銳敏한 學生들을 道德的이고 主體的이며 健康한 사람으로 키우는데

교육의 效率을 增大시켜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京畿道學徒愛鄉隊 活動은 國民精神의 實踐的 運動이며 教育의 社會化라 믿어져 더욱 持續 的으로 愛鄉의 마음을 擴散시켜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創造的인 科學 技術 教育의 進興에 힘써야 하겠습니까.

國力 富強의 源泉인 科學知識과 技術情報는 產業社會의 國際競爭力을 가름하는 가장 貴重한 資源입니다. 人力資源을 最大한 資產으로 삼고 있는 우리가 尖端科學技術을 開發하고 科學優秀頭腦를 確保해야 함은 當然한 歸結입니다. 教育課程 運營에 內實을 圖謀하고 實驗·觀察·實習을 擴充하여 探究能力을 培養하고 科學 英才를 早期發掘 育成함으로써, 先進의 障壁을 힘차게 뛰어 넘는 터전을 充實히 닦아 나가야 하겠습니까.

둘째, 겨레의 스승이란 높은 矜持로 師道를 實踐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을 來日로 이어가는 징검다리 機能을 갖고 있는 우리 教育은 스승이 있기에 現實 問題의 開拓과 歷史의 創造가 可能한 것입니다.

教育者로서 反共 理念으로 굳게 武裝하고 透徹한 國家觀과 不動의 教育哲學을 가지는 한편 不斷히 智와 德을 키워 自己를 날로 새롭게 함으로써 創意的이고 實力있는 참다운 教育 專門家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自身을 태워 周邊을 밝히는 촛불의 美德을 體得하여 사랑과 理解를 바탕으로 學生을 指導하며 教壇 教室을 眞理 探究와 人格 陶冶의 場으로 만들어 가면서 師弟 同行의 垂範的인 生活이 學校밖에 까지 影響을 미칠 때 비로서 尊敬받는 스승이 될 것입니다.

셋째, 創意的이고 奉仕的인 教室 中心의 支援 行政에 힘써야 하겠습니까. 教室 現場에서 二千年代의 主役이 삶이 슬기를 버리고 人格形成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自律的으로 問題를 解決하고 遠大한 理想을 實現하는 힘을 길러 주는 教授·學習 活動이 圓滿히 이루어지도록

함은 教壇 支援의 一次的 所任입니다.

學校는 그 學校長의 그림자와 같은 것임을 前提하면서 學校長 中心의 教育經營을 最大限 保障할 것을 約束하고 自律에 따른 責任이 莫重함을 強調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管理職은 教育 現場을 돕는다는 姿勢를 堅持하고 教師의 意見을 收斂하여 勤務 環境을 改善하여 人和的 雰圍氣를 造成하는 同時에 周邊의 모든 資源을 活用하여 支援에 總力을 傾注하고 授業 中心의 協議 獎學을 活性化함으로써 二世 教育에 最善의 教育力을 發揮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까. 또한 教育 組織이 大型化되고 複雜해지는 오늘의 社會는 教育 行政의 傳門의 意見과 高度의 技法을 要求합니다.

現場 教育이 國家 發展에 直結되도록 人事 制度를 改善하고 教員의 士氣를 振作시키는 方案을 講究·推進하며 教育 指導 機能을 能率化하고 支援 體制를 整備하는 데 不斷한 研究와 努力을 해야 하겠습니까.

따라서 教育委員會를 비롯한 教育 關聯 機關이 固有한 役割 遂行能力을 提高하여 教壇 支援의 큰 몫을 해내야 하겠습니까.

親愛하는 京畿教育同志 여러분!

우리는 歷史上 처음으로 맞는 88서울올림픽 開催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先進 跳躍의 分岐點이 될 중대한 局面에서 召命 意識을 높이 하여 國家의 大事를 매듭짓고 민족의 榮光을 創造하는데 偉大한 教育力을 結集해 주실 것을 懇曲히 當付합니다.

오늘 教育監의 重責을 맡은 本人은 三萬 教育者와 五百萬 道民의 鄉土 愛가 大合唱을 이루어 京畿教育 發展의 礎石을 다지고 國運 隆盛의 底力으로 昇華될 것을 確信하며 보람찬 날을 위하여 身命을 다 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來賓 여러분 그리고, 教育 同志, 여러분의 助言과 協助를 期待하며 여러분의 健康과 家庭의 幸福을 祈願하면서 就任辭에 가름합니다.

大端히 感謝합니다.

1987년 2월 10일

京畿道教育委員會 教育監 朴 允 燮

### 3. 第8代 韓 懷 教育監 就任辭

오늘 本人이 第8代 本道 教育監에 就任함에 있어 먼저 尊敬하는 京畿道教育委員會 任仕彬 議長님과 教育委員 여러분에게 深甚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參席해 주신 來賓 여러분께 衷心으로 感謝를 드립니다.

그리고 京畿教育 發展에 크게 貢獻하신 歷代 教育監님과 恒常 祈禱하는 마음으로 경기교육에 獻身하신 第7代 朴允燮 教育監님께 眞心으로 머리숙여 敬意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京畿教育에 대하여 恒常 理解와 聲援을 보내 주시는 學父母님과 六百萬 道民 여러분께 就任의 人事를 드립니다.

親愛하는 教育同志 여러분!

本人은 이 자리를 빌어 渾身의 努力으로 誠心誠意 맡은 바 任務를 遂行할 覺悟임을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京畿教育의 施策方向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調和롭고 創意的인 韓國人育成’이란 旗幟 아래 全人教育의 充實, 教職使命의 完遂, 支援行政의 強化라는 三代 教育指標를 設定 推進하여 왔습니다.

人間의 삶을 가꾸는 教育의 理想과 國家社會의 發展方向, 그리고 京畿教育의 現在와 未來를 展望하여 볼 때, 이는 合理的이고 妥當한 教育指標로서 앞으로도 더욱 力動的으로 達成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한편 民族自尊과 民主和合의 祖國을 建設하고자 온 겨레의 힘을 集結시키고 있는 時代的 要請과 지역社會 發展에 있어서의 教育의 役割로 보아 教育의 民主化와 地方化 時代에 對備하는 일에도 能動的으로 對處하

여 새로운 施策開發에도 힘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지니고 있는 教育力을 最大로 發揮할 수 있도록 努力하겠습니다.

教育同志 여러분!

우리가 當面하고 있는 教育界의 現實을 直視하여 볼 때, 우리는 時急히 教育의 本質을 回復해야 할 責務가 우리에게 있음을 共感합니다.

極히 一部에 지나지 않기는 하지만 우리 教育家族 相互間에 不信과 葛藤으로 本意아닌 教育力의 弱화를 招來하고 있음은 매우 不幸한 일로서 하루 속히 슬기롭고 果敢하게 克服하여, 教育이 信賴를 되찾고 教育秩序를 確立함이 우리 教育이 안고 있는 最優先의 課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教育 本然의 所任에 盡力하여, 우리의 教育現場이 健全한 教職召命으로 가르침에 專念하는 教師, 바른 價値觀과 行動으로 배움에 情熱을 바치는 學生, 스승과 弟子가 즐겁게 만나는 學校로 그 모습을 달리할 때, 人間形成의 道場으로서 傳統과 特性이 있는 내고장 學校가 이룩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教育行政, 教育研究, 教育實踐 등 모든 教育分野에서 우리 전 教育家族이 이러한 所望스러운 學校教育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全力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教育委員會, 教育廳, 學校에서의 支援行政은 教授-學習이 이루어지는 教壇을 焦點으로 一貫性있게 推進되도록 努力해야 되겠으며, 急增하는 教育需要에 따라 各級 學校를 擴充하여 教育環境을 改善하고, 教員과 學生의 福祉向上을 위해서도 꾸준히 힘을 傾注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教育을 통하여 한 사람의 個人과 이 社會의 構成員으로서 理想的인 生活을 追求하고, 보람을 찾는 學生과 教員이 되고, 學父母와 地域社會로 부터 뜨겁게 信賴받는 京畿教育이 이룩되리라

고 믿는 바입니다.

오늘 本人은 教職의 伴侶로서 三萬四千 教育同志 여러분의 汗結같은 協助에 힘입어 京畿教育 發展을 위하여 熱과 誠을 다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教育委員님과 來賓, 그리고 教育同志 여러분께 再三 感謝드리며, 여러분 家庭에 恒常 幸運이 깃들기를 祈願합니다.

感謝합니다.

1989년 5월 6일

京畿道教育委員會 教育監 韓 煥

---

---

**京畿教育史** (1983~1991)

---

1991. 12. 15 印刷

1991. 12. 31 發行

發行人：京畿道教育廳 韓 煥

編輯人：京畿道教育研究院 李蓉馥

印刷：世昌文化社

TEL : 6-6373·FAX : 46-6373

---

〈非賣品〉